

#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044-414-1134)

**신민이**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 차 례

1. 머리말
2.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평가
3.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향

## 주요 내용

- ▶ 2020년 한·말레이시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마하티르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됨.
  -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소득수준이 세 번째로 높고 주변국 대비 인프라가 우수한 말레이시아는 1960년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제조업, 건설업,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함.
-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교역 및 투자는 최근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이며, 건설수주 또한 2013년에 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등 양국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이 부진함.
  - 말레이시아의 저임가공형 제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한·말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경제협력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 말레이시아 신정부는 2024년 고소득국 도약을 목표로 생산성 향상, 혁신역량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동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대외관계 다변화 전략을 추구함.
  - 마하티르 정부는 경제성장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 제고, 산업 고부가가치화, 양질의 투자 촉진 등을 피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마련해 혁신역량 제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강조함.
  -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산업 허브로 육성하고자 할랄산업 및 이슬람금융 육성, 할랄 표준화를 지속함.
  - 신정부는 동방정책 재포방, 실용주의에 기반한 대중국 협력 추진,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대외정책 방향을 설정함.
- ▶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 우수한 인프라, 글로벌 할랄산업 허브 등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바, 양국간 경협 현황 및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근간해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으로는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연계를 통한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 추진, 양자 FTA 재추진, 할랄산업 관련 협력 확대를 제시함.

## 1. 머리말

■ 아세안의 대표적 공업국기인 말레이시아는 △ 미·중 통상마찰 심화 및 글로벌 저성장 기조 확산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 신정부 출범('18. 5) 이후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등에 기인해 수출, 투자, 정부지출 증가율이 하락하여 2018년 기준 4.7% 성장하며 성장세가 둔화됨(표 1 참고).

- 전기전자제품과 석유·가스·팜유 등 원자재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무역의존도가 2017년 기준 136%로 높은데, 최근 대외수요 감소로 수출 및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됨.<sup>1)</sup>
  - 수출 증가율('17→'18): 9.4%→1.6%, 고정투자 증가율('17→'18): 6.3%→1.4%<sup>2)</sup>
  - 수출 비중('17): 전기기기(HS-85) 32%, 광물성 연료(HS-27) 15%<sup>3)</sup>
- 신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채 감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경제성이 낮은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 지출을 삭감함에 따라 정부지출 증가율이 하락함.
  - 마하티르 총리 취임 이후 공공부채 규모가 전임 정권에서 발표한 수치를 크게 웃도는 1조 링깃(약 2,514억 달러, GDP의 80%)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짐.
  - 정부지출 증가율('17→'18): 5.4%→3.2%<sup>4)</sup>
- 향후 수년간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수출 및 투자 부진으로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0년대 중반까지 4%대 초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말레이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구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정)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실질 GDP 증가율	%	6.0	5.1	4.2	5.9	4.7*	4.3	4.4
명목 GDP	십억 달러	338.1	296.6	296.8	314.7	356.2	364.7	379.2
1인당 GDP	달러	11,184	9,655	9,515	9,951	11,118	11,238	11,535
총인구	백만 명	30.2	30.7	31.2	31.6	32.0	32.5	32.9
15~64세 인구	%/총인구	68.9	69.2	69.3	69.4	69.4	69.4	69.4
CPI 상승률(평균)	%	3.1	2.1	2.1	3.8	1.0	1.6	2.2
산업생산증가율	%	5.2	4.7	4.1	4.3	3.3	2.3	2.9
수출(상품)	십억 달러	207.5	174.6	165.5	187.9	213.5	213.2	218.1
수입(상품)	십억 달러	172.9	146.7	141.0	160.7	179.4	182.0	185.0
무역의존도(무역/GDP)	%	138.3	133.5	128.8	135.8	-	-	-
경상수지/GDP	%	4.4	3.1	2.4	3.0	3.1	2.1	2.7
환율(평균)	링깃/달러	3.3	3.9	4.1	4.3	4.0	4.1	4.2
외환보유고(연말)	십억 달러	114.6	94.0	93.1	100.9	99.9	101.0	113.1

주: \*는 실제치임.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19. 3. 4); 말레이시아 통계청, <https://www.dosm.gov.my/v1>(검색일: 2019. 3. 4);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s://databank.worldbank.org>(검색일: 2019. 3. 4).

- 1) 한국의 무역의존도: 81%('17),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s://databank.worldbank.org>(검색일: 2019. 3. 4).
- 2) IHS Markit(검색일: 2019. 3. 4).
- 3) UN Comtrade(검색일: 2019. 3. 4).
- 4) IHS Markit(검색일: 2019. 3. 4).

■ 2020년 한·말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경제 현황, 양국간 경제협력 평가, 마하티르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소득수준이 세 번째로 높고 주변국 대비 인프라가 우수한 말레이시아는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한국과 제조업, 건설업,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함.
- 한·말 경제협력은 제조업, 건설, 에너지 등 전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고에서는 한·말 경제협력 평가, 마하티르 신정부의 경제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교역, 투자, 건설수주를 중심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주변 아세안 국가와 한국간 경제협력 현황 비교를 통해 한·말 경제협력 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 중기경제개발계획, 4차 산업혁명 육성전략, 할랄산업 발전전략, 대외정책 기조 등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발전 방향을 분석함.
- 한·말 경제협력 현황, 신정부의 경제발전전략 및 대외정책 등을 기반으로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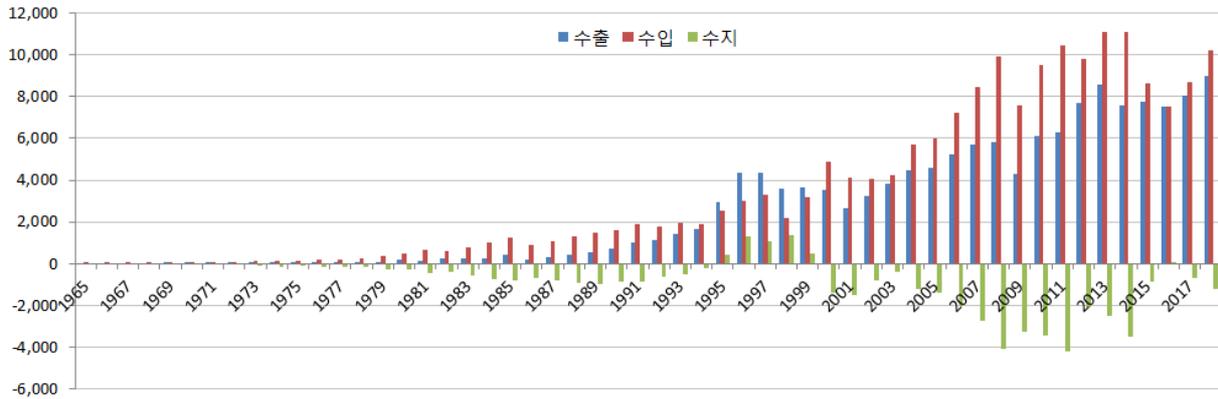
### 가. 교역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10위권 내외의 지위를 꾸준히 유지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임(그림 1 참고).

- 한·말 교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감소했으며, 2015~17년에는 석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대말레이시아 수입액 감소로 교역이 감소세를 보임.
  - 2015~17년 감소세를 보인 교역액은 유가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8년에는 2013년 수준(197억 달러)을 회복함.
- 2018년 기준 양자간 교역 규모는 192억 달러로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4대 교역대상국임(13대 수출대상국(수출액 90억 달러), 13대 수입대상국(수입액 102억 달러)).

그림 1.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입 추이(1965~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19. 3. 4).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 보일러·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전기기기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광물성 연료가 2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점이 특징임(표 2 참고).

- 2008년 전기기기 수출은 대말레이시아 수출의 36%를 차지했으나, 2018년 기준 비중이 20%로 하락한 반면, 광물성 연료 수출 비중은 19%로 크게 상승하며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함.
- 광물성 연료 수출 비중이 급증한 점은 2010년에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부문에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유관함.
- 2018년 기준 양국간 상위 3대 수출입 품목이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 보일러·기계류로 동일한 점으로 볼 때 해당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연도별·품목별 수출 추이(2008년, 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2018년				
순위	HS-Code	품목명	금액	비중	순위	HS-Code	품목명	금액	비중
1	85	전기기기	2,085	36.0	1	85	전기기기	1,813	20.2
2	84	보일러·기계류	753	13.0	2	27	광물성 연료	1,678	18.7
3	72	철강	589	10.2	3	84	보일러·기계류	929	10.3
4	90	광학·정밀기기	584	10.1	4	72	철강	639	7.1
5	39	플라스틱	265	4.6	5	40	고무	585	6.5
6	87	일반차량	221	3.8	6	39	플라스틱	510	5.7
7	74	동	186	3.2	7	74	동	419	4.7
8	73	철강제품	158	2.7	8	89	선박	408	4.5
9	29	유기화합물	107	1.8	9	28	무기화합물	342	3.8
10	31	비료	105	1.8	10	29	유기화합물	205	2.3
기타			741	12.8	기타			1,466	16.3
총계			5,794	100.0	총계			8,99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19. 3. 4).

■ 최근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자본재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출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거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부록 표 1 참고).

- 2018년 기준 한국의 대말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80%로,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본재 수출 비중은 15%로 2008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 두드러짐.
-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고 신정부의 생활비부담 경감 정책 추진에 따라 소비재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나, 2018년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소비재 수출 비중은 4.1%에 불과함.
- 말레이시아의 1인당 GNI는 9,650달러임(17, WDI).

■ 2018년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입은 수출과 동일하게 광물성 연료, 전기기기, 보일러·기계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자원부국인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성상 알루미늄, 철강, 목재 등 원자재 관련 품목이 상위 비중을 차지함.

- 특히 한국의 대말 수입은 상위 2대 품목(광물성 연료, 전기기기)의 비중이 2018년 기준 60%에 달할 정도로 이들 두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원자재 가격 하락, 전기전자제품 불황 등 변수 발생에 취약한 구조임(표 3 참고).
- 광물성 연료 수입 비중은 2008년 기준 54%로 높았으나, 2018년에 32%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유관함.<sup>5)</sup>

표 3.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연도별·품목별 수입 추이(2008년, 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2018년				
순위	HS-Code	품목명	금액	비중	순위	HS-Code	품목명	금액	비중
1	27	광물성 연료	5,303	53.5	1	27	광물성 연료	3,273	32.1
2	85	전기기기	2,106	21.3	2	85	전기기기	2,836	27.8
3	44	목재·목탄	375	3.8	3	84	보일러·기계류	790	7.7
4	15	동식물성 유지	248	2.5	4	90	광학·정밀기기	364	3.6
5	84	보일러·기계류	229	2.3	5	76	알루미늄	343	3.4
6	29	유기화합물	217	2.2	6	72	철강	324	3.2
7	38	화학공업 생산품	195	2.0	7	44	목재·목탄	311	3.0
8	40	고무	191	1.9	8	38	화학공업 생산품	248	2.4
9	90	광학·정밀기기	160	1.6	9	29	유기화합물	239	2.3
10	80	주석	154	1.6	10	39	플라스틱	237	2.3
기타			731	7.4	기타			1,241	12.2
총계			9,909	100.0	총계			10,20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19. 3. 4).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입 역시 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5) 배럴당 브렌트유 가격은 2008년 연평균 약 99달러로 높았으나, 2018년 기준 약 72달러로 하락함, Petronet, <http://www.petronet.co.kr>(검색일: 2019. 3. 4).

- 말레이시아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던 1980년대 후반에는 1차 상품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간재 수입 비중이 2018년 기준 79%로 증가함(부록 표 2 참고).
- 1988년 기준 1차 상품 비중이 대말레이시아 수입의 59%를 차지했으나, 이후 급감해 2018년 기준 4%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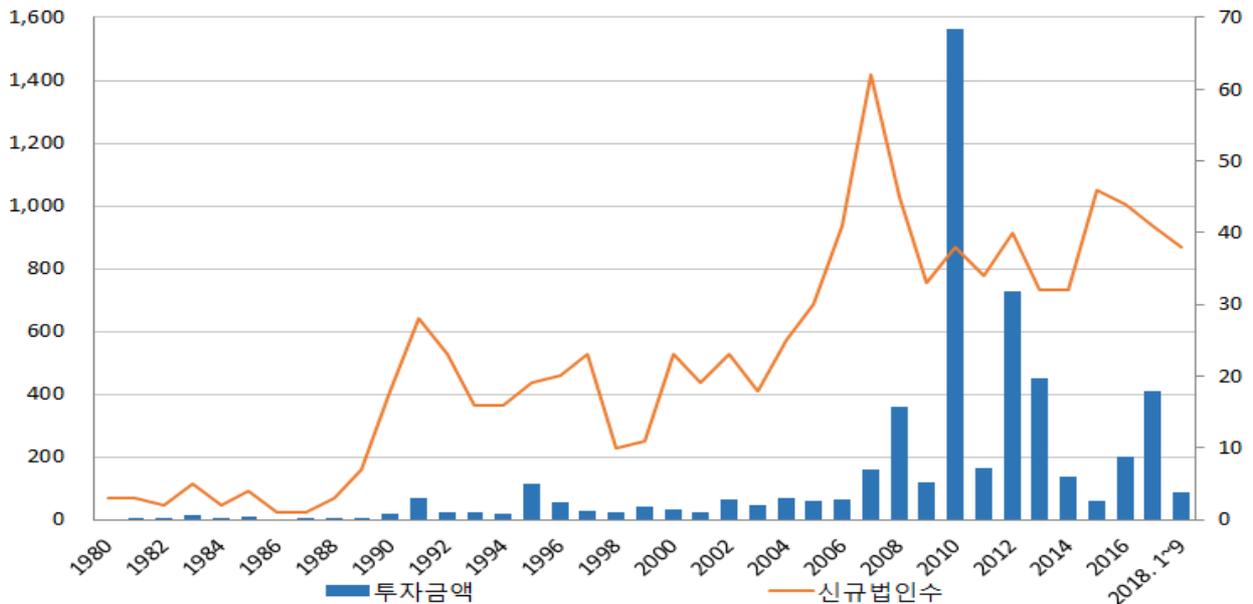
## 나. 직접투자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2018년 9월 누계 기준 52억 달러 규모로, 2010년에 최고치를 달성한 후 등락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8년 9월 누적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17대 투자대상국으로,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최고점을 달성함(그림 2 참고).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가 2010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투자가 등락해왔으나 2015년 투자금액 6,000만 달러로 단기 저점을 형성한 후 2016~17년은 투자 규모가 반등함.

그림 2. 한국의 연도별 대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1980~2018년 9월)

(단위: 백만 달러(좌), 개(우))



주: 2018년은 1~9월 투자금액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검색일: 2019. 3. 4).

■ 한국의 업종별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54%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 업종이며, 광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많이 이루어짐(부록 표 3 참고).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까지는 주로 전기전자 분야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됨.
- 2000년 이후로는 건설업, 금융업 등으로 다각화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함.
- 2010년 제조업 부문에 14억 달러(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투자 1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최대 투자액을 달성함.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제조업종별 투자의 경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부문이 전체 제조업 투자금액의 56%를 차지하는 최대 제조업종이며, 1차금속 제조업(17.1%), 전기장비 제조업(6.7%) 순으로 많이 이루어짐(부록 표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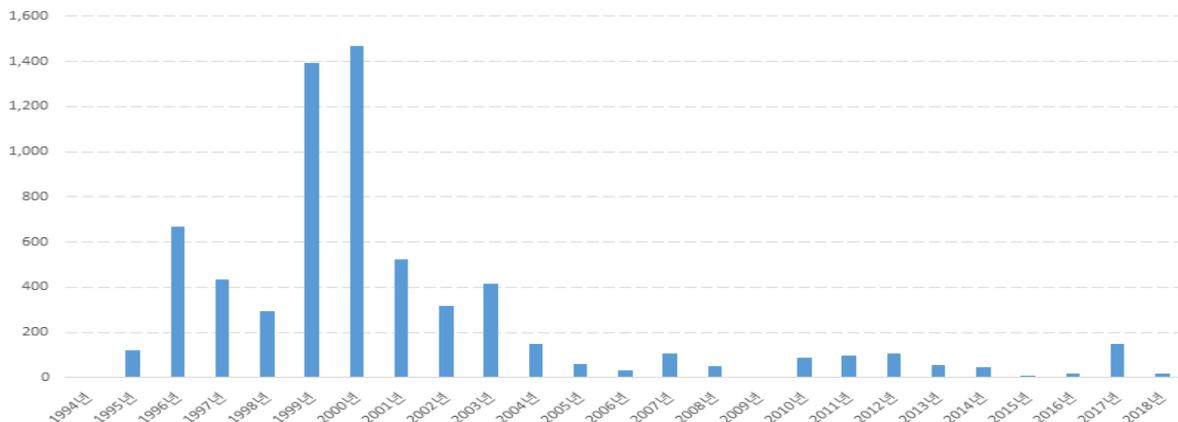
- 제조업종 내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주로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당 업종이 제조업종 내 주요 투자업종으로 부상함.

■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1999~2000년에 최대 규모를 달성한 후 지속 감소함(그림 3 참고).

- 1999~2000년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가 급증한 것은 당시 서비스업, 특히 금융·보험 부문으로의 투자 유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과 유관함.
- 1999~2000년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금융부문 투자 증가는 라부안과 같은 역외금융지역을 경유한 제3국의 투자가 다수 포함됨.<sup>6)</sup>

그림 3.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199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검색일: 2019. 3. 4).

6) kotra(2000),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분석」, p. 24.

■ 말레이시아의 업종별 대한국 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구조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보험 업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부록 표 5 참고).

- 최대 투자 업종인 금융·보험(39.9%) 업종 이외에는 정보통신(9.1%), 부동산(7.6%), 전기·전자(6.4%) 순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다. 건설·인프라

■ 2019년 3월 4일 누적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건설수주액은 208억 달러이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대아세안 건설수주액의 13%를 차지하는 주요 건설시장임(표 4 참고).

■ 한국기업의 대말레이시아 건설수주는 2010년부터 크게 증가했으나, 2013년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4 참고).

- 2010년~19년 3월 4일 기준 한국의 공종별 대말레이시아 건설수주는 주로 산업설비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위 기간 산업설비 세부 공종별로는 발전소(37%), 가스시설(27%), 화학공장(20%) 순으로 많은 수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표 5 참고).

- 2018년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건설수주액은 9.4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산업설비가 64%, 건축부문이 3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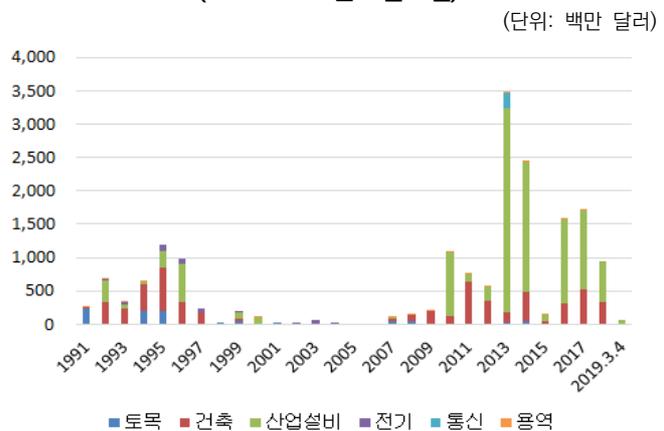
표 4. 한국의 아세안 국별 건설수주 실적  
(1966~2019년 3월 4일 누적)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	누적 금액	비중
1	싱가포르	42.3	26.6
2	베트남	39.2	24.6
3	말레이시아	20.8	13.1
4	인도네시아	17.5	11.0
5	필리핀	16.0	10.0
6	태국	15.8	9.9
7	미얀마	2.3	1.4
8	캄보디아	2.0	1.3
9	라오스	2.0	1.2
10	브루나이	1.3	0.8
아세안 합계		159.0	100.0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9. 3. 4).

그림 4. 한국의 공종별 대말레이시아 건설수주 추이  
(1990~2019년 3월 4일)



주: 2019년은 1월~3월 4일 수주금액임.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9. 3. 4).

표 5. 최근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세부공종별 산업설비 수주(2010~19년 3월 4일)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전소	가스시설	화학공장	가스처리시설	기타	합계
금액	3492.2	2593.0	1868.6	543.0	960.8	9457.7
비중	36.9	27.4	19.8	5.7	10.2	100.0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9. 3. 4).

## 라. 평가 및 전망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교역 및 투자는 2010년 이후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이며, 건설수주 또한 2013년에 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임.
  - 최근 양국간 교역은 품목별로는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상위 2대 품목의 교역 비중이 높아 전기전자제품의 주기적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급락 등 대외환경 악화시 교역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양국간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 위주의 교역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내수 활성화 정책,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한국은 대말레이시아 자본재 및 소비재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건설 부분의 경우 마하티르 신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함에 따라 인프라 부문 수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유가 상승시 한국의 주요 수주 분야인 석유화학산업 설비 관련 수주 기회는 늘어날 수 있음.
- 한·말 경제협력이 정체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교역, 투자, 건설수주 측면에서 경제협력 현황을 비교해보면 말레이시아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베트남의 비중이 큼(표 6 참고).
  - 최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의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교역,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말레이시아의 저임가공형 제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한·말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경제협력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9년 3월 4일 누적 기준 한국의 대아세안 3대 건설수주 시장이나, 건설수주 또한 최근 감소세를 보여 도로, 철도 등 단순 인프라 건설보다는 현지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석유화학 플랜트, 고층건물, 해상교량 등 고급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 수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6.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경제협력 현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GDP('17)	교역('18)		투자('18.9 누적)		건설수주('19.3.4 누적)	
	십억 달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도네시아	1,014	19,994	12.5	10,659	17.8	17,475	11.0
태국	456	14,087	8.8	2,601	4.3	15,763	9.9
싱가포르	324	19,756	12.4	11,246	18.8	42,296	26.6
<b>말레이시아</b>	<b>317</b>	<b>19,200</b>	<b>12.0</b>	<b>5,239</b>	<b>8.7</b>	<b>20,781</b>	<b>13.1</b>
필리핀	314	15,606	9.8	3,924	6.5	15,967	10.0
베트남	224	68,265	42.7	19,819	33.1	39,160	24.6
미얀마	66	1,071	0.7	3,250	5.4	2,298	1.4
캄보디아	22	974	0.6	2,678	4.5	2,009	1.3
라오스	17	114	0.1	480	0.8	1,961	1.2
브루나이	12	672	0.4	15	0.0	1,256	0.8
총계	2,766	159,739	100.0	59,910	100.0	158,965	100.0

주: 국가 나열 순서는 GDP 순, 비중은 아세안 10개국 중 비중임.

자료: ASEAN Stats, www.aseanstats.org(검색일: 2019. 3. 4);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19. 3. 4);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검색일: 2019. 3. 4);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9. 3. 4).

### 3.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향

#### 가.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 방향

- 마하티르 신정부는 2024년 고소득국 도약을 목표로 생산성 향상, 혁신역량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바, 본 절에서는 신정부의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함.

##### 1) 중기경제개발계획: 포용적 경제발전,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마하티르 정부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11차 말레이시아계획 중기검토보고서(Mid-term Review of the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에 따라 경제개발을 추진함(부록 표 6 참고).

- 위 보고서는 전임 나집 정부에서 발표한 '11차 말레이시아계획(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 한 것임.
- 정부는 수정 전 계획에서 202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2017년 세계은행 기준 1인당 GNI 12,056달러)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목표 달성 시점을 2024년으로 연기함.
- 신정부는 위 보고서를 통해 사회경제정책의 6대 축으로 ① 공공서비스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 ② 포용적 경제발전 및 복지 확충 ③ 지역 균형발전 ④ 인적자원 역량 강화 ⑤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향상 ⑥ 경제성장 강화를 제시함.

- 정부는 경제성장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 생산성 제고 △ 산업 고부가가치화 △ 양질의 투자 촉진 등을 강조함(부록 표 7 참고).
-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산관학 연계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채택, 사업 디지털화 등을 추구함.
- 신정부는 가치사슬 고부가가치화,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화 및 혁신, 지식집약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및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농업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개선, 제조업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2) 4차 산업혁명 대응: Industry 4W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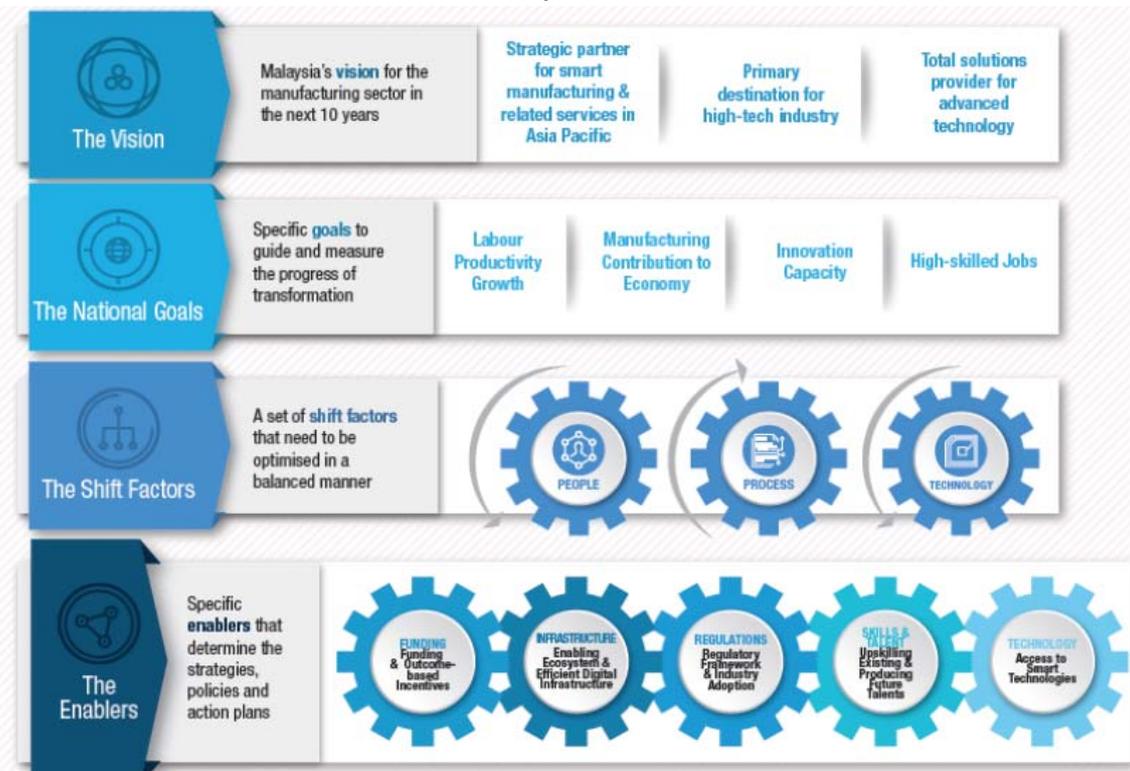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0월 'Industry 4WRD(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를 발표했으며, 이는 혁신 역량 제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함(그림 5 참고).
- 'Industry 4WRD'의 비전은 △ 아태지역의 스마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의 전략적 파트너 △ 첨단기술 산업의 메카 △ 첨단기술 토털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도약임.
- 정부는 위 비전 달성을 위해 △ 노동생산성 향상 △ 제조업 비중 확대 △ 혁신 역량 강화 △ 고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함(부록 표 8 참고).
- 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 'FIRST(Funding, Infrastructure, Regulations, Skills & Talent, Technology)'를 채택함.
  - 이는 ① 자금지원 확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② 4차 산업혁명 추진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③ 규제 개혁 ④ 기존 인재 역량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 ⑤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을 의미함.
- 정부가 'Industry 4WRD'를 통해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은 축매산업(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화학) 과 고성장 잠재 산업(의료기기, 항공우주) 등임(표 7 참고).

표 7. 'Industry 4WRD'의 중점 육성 산업

중점 육성 산업	세부 업종
전기전자	전자부품, 소비자 가전, 산업전자(Industrial electronics), 전기제품
기계 및 장비	특수·일반·발전 기계 및 장비, 공작기계
화학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함유 화학제품(Oleochemical)
의료기기	의료기기 소모품(Consumables), 외과 기계, 임상 장비, 임플란트, 헬스케어 기기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항공기 제조(Aero-manufacturing), 시스템 통합,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기타	자동차, 교통, 섬유, 제약, 금속, 식품가공, 서비스

자료: MITI(2018), *Industry 4WRD: 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 p. 25.

그림 5. 'Industry 4WRD' 프레임워크



자료: MIT(2018), *Industry 4WRD: 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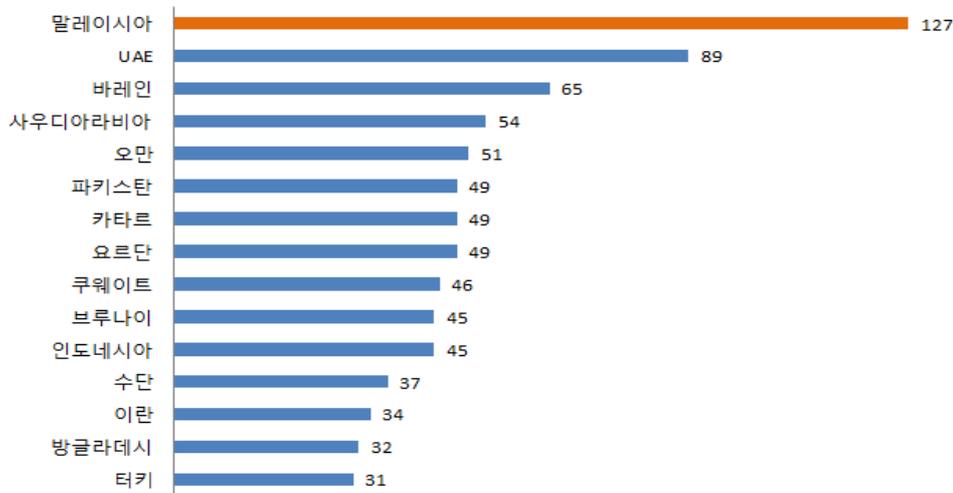
### 3) 할랄산업 육성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을 글로벌 할랄산업 허브로 육성하고자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할랄산업과 이슬람금융 육성, 할랄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0년대 중반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6년 할랄산업개발공사(HDC) 설립, 2008년 ‘할랄산업 마스터 플랜 2008~2020’ 수립 등 국가 주도로 할랄산업을 중점 육성함.
- 신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0월에 발표된 ‘11차 말레이시아계획 중기검토보고서’ 상에도 경제성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할랄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할랄 전문가·기업 육성, 인증제도 강화, 프리미엄 할랄제품 및 서비스 생산 등이 포함됨.
- 정부의 강력한 할랄산업 및 이슬람금융 육성 의지에 힘입어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슬람 경제 생태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및 할랄산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함.
- Thomson Reuters가 발표하는 2018~19년 세계 이슬람경제 지표(GIEI: Global Islamic Economy Indicator)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1위를 차지해 전 세계에서 이슬람경제 및 할랄산업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고).<sup>7)</sup>

7) Thomson Reuters(2018),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8/19*, p. 10.

그림 6. 세계 이슬람경제 지표 점수 상위 15개국



주: 국가 순서는 점수가 높은 순, 숫자는 지표 점수임.

자료: Thomson Reuters(2018),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8/19*, p. 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 4) 균형 있는 대외정책 추진

■ 정부는 △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재표방을 통한 대일본 경제협력 확대 △ 실용주의에 기반한 대중국 협력 추진 △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 등을 골자로 대외정책 방향을 설정함.

- 마하티르 정부는 출범 직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방정책을 재표방해 일본과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이전 재임시절(1981~2003년)인 1982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해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 목적이며, 공무원 연수, 유학생 초청, 기술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력이 주를 이룸.
- 신정부는 대규모 자본 및 이민자 유입 등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지양하고자 하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위상을 감안해 실리에 기반한 대중국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마하티르 총리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미국 등 강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함.

### 나.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안

#### 1)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확대

■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관계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동방정책을 재표방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통한 협력 확대 추진이 필요함.

- 마하티르 총리는 취임 직후 일본을 방문하여 동방정책 부활을 통해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대일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바, 우리 정부도 정부간 교류를 통해 동방정책 참여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남방정책도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을 16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 협력을 골자로 하는 동방정책과 유사함.
- 한국은 인적자원개발을 근간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기에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음.

## 2)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 추진

■ 말레이시아는 2024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개발계획 및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협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따른 신규 협력 분야로는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고급 인재 양성, 공장 자동화(스마트 팩토리), 규제개혁 경험 공유,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스마트시티 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협력도시로 선정,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물 관리 시범사업을 골자로 하는 협력의향서를 전달함(2019년 장관급 MOU 체결 예정).
  - 위 사업은 한국의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의 첫 해외진출 선도 사례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 한국은 말레이시아와의 스마트시티 협력 성공사례를 토대로 향후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역내 제3국 공동 진출도 추진할 수 있음.

## 3) 양자 FTA 재추진

■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2012년 말 타당성 공동연구 종료 이후 중단된 양자 FTA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다소 정체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의 경제 특성 및 관 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양자 FTA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음.
- 양국간 상품 관세는 2007년에 발효된 다자협정인 한·아세안 FTA를 통해 상당 부분 철폐된바,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심도 있는 양자 FTA 추진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비관세장벽 제거, 금융·건설 등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전반적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양자 FTA 체결 및 산업협력 채널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분야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한-말레이시아 산업협력 워킹그룹 회의',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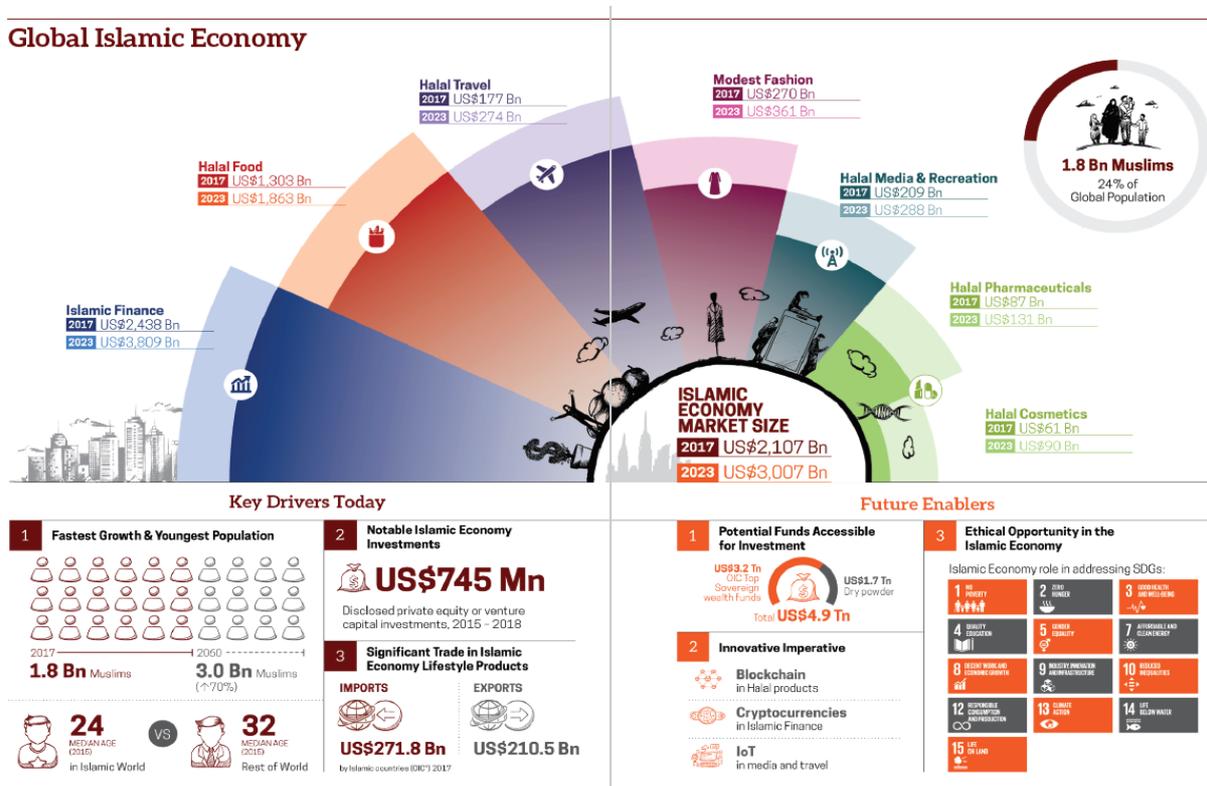
스포럼' 등 협력채널을 정례화해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 교류 활성화, 말레이시아 국가 주도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 할랄산업 관련 협력 확대

- 최근 이슬람 금융, 할랄산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바, 글로벌 할랄산업 허브인 말레이시아와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할 수 있음.
- 최근 이슬람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과 경제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 가며 새로운 사회원리로 정착되고 있음.
- 게다가 이슬람 금융 및 할랄 시장은 무슬림 인구의 증가, 이슬람 경제권의 부상으로 인한 중산층 확대와 이슬람 가치소비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7 참고).
- Thomson Reuters는 '2018~19년 세계 이슬람 경제 보고서 현황'에서 이슬람 경제 시장(이슬람 금융 제외) 규모가 2017년 기준 2.1조 달러에서 2023년 3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무슬림 인구 또한 2017년 기준 18억 명에서 2060년에 3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sup>8)</sup>

그림 7. 세계 이슬람경제 현황 및 전망



자료: Thomson Reuters(2018),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8/19*, pp. 6-7.

8) Thomson Reuters(2018),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8/19*, pp. 6-7.

- 이슬람 금융은 2017년 기준 2.4조 달러에서 2023년 3.8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sup>9)</sup>
-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할랄 식품 위주에서 최근에는 이슬람 금융과 할랄산업으로 분화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과 식품은 물론 의약품, 화장품, 패션, 관광, 미디어-레크리에이션 등이 포함됨. **KIEP**

---

9) *Ibid.*

## [부록]

부록 표 1.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연도별·가공단계별 수출 추이(1988~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구분	1988년		1998년		2008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상품	2	0.4	5	0.1	21	0.4	47	0.5
소비재	30	7.3	50	1.4	197	3.4	364	4.1
자본재	29	7.1	473	13.1	1,487	25.7	1,374	15.3
중간재	227	55.4	3,073	85.3	4,084	70.5	7,206	80.1
기타	122	29.8	1	0.0	6	0.1	2	0.0
총계	411	100.0	3,602	100.0	5,794	100.0	8,99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19. 3. 4).

부록 표 2.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연도별·가공단계별 수입 추이(1988~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구분	1988년		1998년		2008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상품	787	59.1	378	17.1	1,487	15.0	433	4.2
소비재	11	0.8	41	1.9	207	2.1	657	6.4
자본재	8	0.6	93	4.2	632	6.4	1,059	10.4
중간재	283	21.2	1,698	76.8	7,583	76.5	8,018	78.6
기타	243	18.2	0	0.0	0	0.0	38	0.4
총계	1,331	100.0	2,211	100	9,909	100	10,20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19. 3. 4).

부록 표 3.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2018년 9월 누계 기준)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951	358	3,376	1,367	2,868
광업	143	18	2,899	554	1,362
금융 및 보험업	49	20	380	66	333
정보통신업	101	42	311	164	254
도매 및 소매업	269	118	133	365	103
건설업	324	134	169	366	93
부동산업	91	34	648	140	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8	4	54	27	4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6	41	52	97	41
농업, 임업 및 어업	45	16	41	56	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6	26	23	53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7	38	37	16
숙박 및 음식점업	40	20	15	60	9
운수 및 창고업	43	19	5	31	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	11	4	18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	6	2	13	1
교육 서비스업	4	3	1	7	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1	0	2	0
N/A	7	1	0	1	0
<b>합계</b>	<b>2,276</b>	<b>879</b>	<b>8,152</b>	<b>3,424</b>	<b>5,239</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검색일: 2019. 3. 4).

**부록 표 4.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제조업종별 직접투자 내역(2018년 9월 누계 기준)**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업종중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7	50	1,613	181	1,594
1차 금속 제조업	116	23	684	178	490
전기장비 제조업	70	29	219	114	19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9	51	259	171	15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3	33	152	113	14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	11	221	49	11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8	29	60	127	5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2	21	42	86	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9	24	27	83	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	13	29	28	21
기타 제품 제조업	43	22	13	42	10
식품 제조업	14	8	9	18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5	8	19	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4	4	7	16	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8	5	6	18	3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	3	5	7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1	10	7	33	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3	5	21	2
가구 제조업	7	4	4	6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	4	2	6	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	2	1	4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4	3	1	14	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1	3	33	0
<b>합계</b>	<b>951</b>	<b>358</b>	<b>3,76</b>	<b>1,367</b>	<b>2,868</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검색일: 2019. 3. 4).

부록 표 5.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연도별·업종별 직접투자 추이(199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1994~2000년		2001~10년		2011~18년		1994~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b>농·축·수산·광업</b>	<b>35</b>	<b>0.8</b>	<b>0</b>	<b>0.0</b>	<b>0</b>	<b>0.0</b>	<b>35</b>	<b>0.5</b>
광업	35	0.8	0	0.0	0	0.0	35	0.5
<b>제조업</b>	<b>1,210</b>	<b>27.6</b>	<b>317</b>	<b>18.2</b>	<b>86</b>	<b>17.2</b>	<b>1,613</b>	<b>24.4</b>
식품	94	2.2	0	0.0	4	0.8	98	1.5
섬유·직물·의류	99	2.3	0	0.0	0	0.0	99	1.5
제지·목재	93	2.1	11	0.6	0	0.0	104	1.6
화학	44	1.0	24	1.4	0	0.1	68	1.0
의약	20	0.5	0	0.0	5	0.9	25	0.4
비금속 광물제품	138	3.1	51	2.9	1	0.1	189	2.9
금속·금속가공제품	202	4.6	21	1.2	0	0.1	223	3.4
기계장비·의료정밀	58	1.3	36	2.0	3	0.7	97	1.5
전기·전자	224	5.1	128	7.3	72	14.4	425	6.4
운송용 기계	234	5.4	12	0.7	1	0.1	247	3.7
기타 제조	4	0.1	34	2.0	0	0.0	38	0.6
<b>서비스업</b>	<b>2,841</b>	<b>64.9</b>	<b>1,407</b>	<b>80.5</b>	<b>407</b>	<b>81.4</b>	<b>4,655</b>	<b>70.3</b>
도·소매(유통)	265	6.0	90	5.1	37	7.5	392	5.9
숙박·음식점	123	2.8	0	0.0	1	0.2	124	1.9
운수·창고	110	2.5	145	8.3	1	0.3	256	3.9
정보통신	399	9.1	191	10.9	12	2.3	602	9.1
금융·보험	1,739	39.7	768	43.9	133	26.6	2,640	39.9
부동산	195	4.5	115	6.6	195	39.0	505	7.6
사업지원·임대	0	0.0	10	0.5	1	0.3	11	0.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1	0.3	89	5.1	26	5.2	126	1.9
여가·스포츠·오락	0	0.0	0	0.0	0	0.0	0	0.0
공공·기타서비스	0	0.0	0	0.0	0	0.0	0	0.0
<b>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b>	<b>290</b>	<b>6.6</b>	<b>23</b>	<b>1.3</b>	<b>7</b>	<b>1.4</b>	<b>320</b>	<b>4.8</b>
전기·가스	212	4.8	6	0.3	0	0.0	217	3.3
종합건설	49	1.1	0	0.0	7	1.4	57	0.9
전문직별 공사	29	0.7	17	1.0	0	0.0	46	0.7
<b>전체</b>	<b>4,377</b>	<b>100.0</b>	<b>1,747</b>	<b>100.0</b>	<b>500</b>	<b>100.0</b>	<b>6,623</b>	<b>100.0</b>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검색일: 2019. 3. 4).

부록 표 6. 11차 말레이시아계획 중기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거시경제정책 추진 전략

전략	추진 방안
국가-산업-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공급을 위한 산관학 협력 강화</li> <li>· 사업의 디지털화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채택 독려</li> <li>·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가속화</li> <li>· 핵심 생산성지표 달성 목표 수립 및 시행</li> <li>· R&amp;D 프로그램 및 기업 생산성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li> </ul>
양질의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센티브, 조세구조 등 투자정책 종합 점검</li> <li>· 최적화된 자원 배분을 위해 기존 투자 인센티브 개선</li> <li>· 제조업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투자 확대 독려</li> </ul>
가치사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화 및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가속화</li> <li>·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집중</li> <li>·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제품 생산</li> <li>· 현대 농업기술 활용 및 농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농업 현대화</li> <li>· 건설 부문 개혁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 및 지식컨텐츠 향상</li> </ul>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입 관리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생태계 개선</li> <li>· 수출품 고부가가치화</li> <li>· 서비스산업의 국제화</li> <li>·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 자원 활용 확대</li> <li>· 대형 자본재의 수입시점 다변화</li> </ul>
중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세 및 세외수입을 통한 재정수익 확대</li> <li>· 정부자산의 비용 회수 극대화</li> <li>· 경제성장 촉진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지출 최적화·합리화</li> <li>· 공공부채 관리 시스템 개선</li> </ul>

자료: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8), *Mid-term Review of the Eleventh Malaysia Plan 2017-2020*, p. 0-15.

부록 표 7. 11차 말레이시아계획 중기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경제성장 강화 전략

중점 추진 분야	주요 전략	세부 방안
업종별 성장 및 구조개혁 강화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업종별 성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지식집약 서비스산업 육성</li> <li>- 제조업: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자동화, 혁신 촉진, R&amp;D 확대</li> <li>- 농업: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업 현대화, 생산성 제고</li> </ul>
	· 수출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신흥산업 국제기준 준수 등
	· 시장 효율성 개선	- 공기업 및 독점기업 역할 재검토
	· 사업환경 개선	- 규제 개선, 불필요한 교역관행 제거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
혁신 및 기술도입 가속화	· 4차 산업혁명 활용	- 산관학 협업 강화 및 인재 양성
	· 기술도입 강화	-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디지털기술(IoT, AI, VR, 로봇공학 등) 적용 확대 등
	· 연구와 혁신 연계	- 관련 전략 재검토, R&D 성과물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
양질의 인프라 제공	·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선	-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업계와 교육기관간 협력 강화
	· 통합 교통시스템 개발	- 다양한 교통수단 통합, 지역간 연계성 제고 등
	· 물류 무역원활화 추진	- 물류서비스의 디지털화 촉진 등
	· 디지털 인프라 개선	- 브로드밴드 연계성, 가격 적정성 및 품질 개선 등
	· 수자원 서비스 개선	- 수자원 공급 및 하수처리 효율성·생산성 향상 등
· 에너지 공급 유지	-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자료: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8), *Mid-term Review of the Eleventh Malaysia Plan 2017-2020*, p. 15-4, pp. 15-7-15-26.

부록 표 8. Industry 4WRD의 성과지표

구분	2016년	2025년
노동생산성(링깃)	106,647	2016년 대비 30% 증가
제조업 생산(억 링깃)	2,540	3,920
글로벌 혁신지수(순위)	35	30
제조업 숙련노동자 비율(%)	18	35

자료: MITI(2018), *Industry 4WRD: 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 pp. 46-47.